

정보 무늬(QR코드) 이용 시, 음성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0.(화) 08:30

배포: 2026. 3. 10.(화) 08:30

“청렴도 어떻게 높일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 국민권익위, 580개 기관 대상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 기관 유형에 따라 2회 실시…오늘(10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12일 기초지자체·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대상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일정 >

일자	대상	장소
3월 10일(화)	중앙행정기관(49), 광역지자체(17),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146) 등 229개 기관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3월 12일(목)	기초지자체(226), 국공립대학(33), 공공의료(13), 지방의회(79) 등 351개 기관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말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후 12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 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이 확정된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청렴도 평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렴조사평가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0-7631)
		담당자	사무관	백현수	(044-200-7633)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미래세대 청렴교육